

MEMBERSHIP TREND

회원사동향

**LG산전, 호남화력1호기 국산 주제어설비 구축**

LG산전(대표 김정만)은 호남화력 1호기 주제어설비를 구축, 발전플랜트 주제어설비 분야의 본격적인 국산화시대를 열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난 2001년 한전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호남화력 2호기에 국산제품 체제를 구축한 적은 있으나 민간업체 단독으로 국산제품을 공급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LG산전이 주제어설비 구축 프로젝트에 공급한 분산제어시스템(모델명 MASTER P-3000)은 24시간 무정지 운전이 가능하도록 중앙처리 장치 및 네트워크, 전원장치에 이중화 사양을 채택, 성능을 크게 높였다고 LG산전측은 밝혔다.

분산제어시스템은 플랜트 현장의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첨단 제어시스템으로 발전소, 제지, 섬유, 수처리 등 각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LG산전은 앞으로 연간 약 4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발전시장에서 외국업체와 본격적으로 경쟁한다는 계획이다.

**▲분산제어 시스템(DCS:Distributed Control System)이란**

자동 제어 프로그램이 내장돼 다수의 제어용 컴퓨터를 기능별로 분산시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체 관리는 중앙에서 집중 감시·제어하는 시스템. DCS는 발전분야는 물론 상하수, 지역난방, 가스공급, 전력감시 등 전산업에 걸쳐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LG산전이 호남화력 1호기에 구축한 주제어설비 모습. LG산전은 지난 10월에도 평택화력 1~4호기 주제어설비를 수주, 이 분야 국산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 LG전선, 대규모 임원인사 조직개편

LG전선은 지난 20일 대규모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되고 12일 LG산전과 희성전선을 인수하는 등 실질적인 제2창업 원년인 2004년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LG전선은 "이번 인사는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성과지향의 책임경영과 젊고 활기찬 조직을 구현하는데 맞춰졌다"고 밝혔다.

### ■ 임원인사 내용

LG전선은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회의장과 CEO가 역할을 분담했다. LG전선은 "20일 이사회에서 구자열 시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CEO로 내정했으며 또 구자홍 전 LG전자 회장이 내년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되면 LG전선 회장 겸 이사회 의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는 LG그룹에서 계열분리된 LG전선그룹의 대주주인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LG창업고문 일가가 경영 일선에 전면 포진했다.

구자홍 회장은 구태회씨의 장남이며 구자열 부회장은 구평회씨의 장남이다. LG전선은 또한 전무 승진 1명을 비롯해 이사 8명과 이사급 연구위원 3명을 신규 선임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구자열 부회장은 78년 LG상사 평사원에서 지난해 LG전선 대표이사에 오르기까지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과정을 밟았으며 2001년 LG전선에 근무한 이래 성공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신사업 추진 등 사업구조 혁신에 주력해 왔다.

이번 신규 선임 임원의 평균 나이는 44세이며 90%가 사업부문에서 발탁됐다.

### ■ 조직개편 내용

LG전선은 조직간 효율성과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운영시스템을 '4사업본부2사업부'를 '2사업본부(전선/기계)3사업부(통신/전력/부품)'로 전환했다. 이는 핵심사업에 대한 역량집중과 미래신사업 육성, 책임경영체제를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LG전선은 또한 별도로 분리 운영하던 해외사업도 사업부에 귀속시켜 사업부 책임경영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부품, 초고압사업 등 핵심사업의 성장 제고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의 신 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부문을 강화하는 한편 부품연구소를 별도 운영하고 연구위원 제도를 활성화해 연구 동기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 다음은 임원 인사 명단.

〈부회장 승진〉 구자열 〈전무 승진〉 조일권 〈이사 신규선임〉 임철현 전병진 김종하 이광원 김연수 전승재  
도석구 구자은 〈이사급 연구위원〉 이건주 정진희 이경준 김종하 이광원 김연수 전승재 도석구 구자은

## (주)광림, 최신 활선작업차 우수성 인정

특장차 전문생산업체인 (주)광림(대표 정민)이 최신 활선작업차 24대를 한전에 납품했다.

이번에 납품한 차량은 종전 제품에 비해 첨단 시스템을 장착, 작업능률은 높이고 작업하는 사람의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차량은 AMCS(자동제어시스템)를 장착해 차체 내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 차량의 운전상태를 점검한다. 또 바스켓을 좌우 반경 125도까지 회전할 수 있어 차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 여기에 바스켓 엘리베이터 기능도 있어 상하 조절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 회사 이영건 차장은 “차량을 한 곳에 고정한 상태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차량의 모든 시스템은 차체 내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점검이 가능해 최적의 상태에서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으므로 종전 차량에 비해 한 단계 성능을 향상시킨 최신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한전 납품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일반규격 및 필수규격 52개 항목에 대해 성능검사를 받아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차장은 “한전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5년간 꾸준히 한전에 공급했다”며 “전기공사업계에서 이 차량을 사용할 경우 경제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최첨단 활선작업차는 종전의 고소작업차와는 달리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많이 보완돼 작업하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현대 감각에 맞게 설계돼 도심형으로 적합하다는 게 장점이다.

현재 이 차량은 세계적인 고소작업차 생산업체인 일본의 아이치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광림에서 생산하고 있다.

## 전선업체 이라크시장 공략

LG전선, 대한전선 등 국내 전선업체들이 전후복구에 나서고 있는 이라크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두 회사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2003년 이라크 전후복구 특별 한국상품전시회'에 참여,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이 전시회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산업자원부 후원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이라크 전후복구용 물자공급을 위해 활동중인 현지 바이어 1천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전시회 참여업체는 기아,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총 106개 회사가 참여한다. 전기통신분야에는 LG전선, 대한전선 등 24개 업체가 참여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제품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상담함으로써 시장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동 지역에 수출중인 초고압케이블의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라크 지역은 후세인 전 대통령 체포 이후 전후복구사업이 확대·진전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른 물자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MEMBERSHIP TREND



## LG전선, 희성전선 인수

국내 전선업계 매출 1위인 LG전선이 매출 3위인 희성전선을 전격 인수했다.

희성전선은 희성전자와 구분능 희성그룹 회장 등 희성그룹측이 보유하던 지분 43.19% 전량을 구자홍 전 LG전자 회장, 구자열 LG전선 사장 등 LG전선 대주주 일가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LG전선과 희성전선은 22,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LG창업고문 일가가 경영 일선에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선은 이번에 희성전선의 대주주로 등극함으로써 국내 전선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했다. 희성전선은 국내 매출 3위 업체로서 특히 중·저압 범용전선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어 초고압 케이블 등 특고압분야에 강한 LG전선과 막대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선은 특히 산전업계 매출 1위 업체인 LG산전을 인수한 데 이어 전선 매출 3위 업체인 희성전선까지 인수함에 따라 전기업계의 최대 기업으로 부상했다.

또한 LG전선은 LG니꼬동제련, 극동도시가스, LG칼텍스가스와 함께 지난달 LG그룹에서 분리 별도의 그룹을 형성한 데 이어 이번에 LG산전과 희성전선을 계열에 편입시킴에 따라 LG전선그룹은 총 자산 5천1천여억원의 자산기준 재계 서열 15위 그룹(공기업 제외)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와 관련 희성전선 권오겸 이사는 “희성그룹은 그룹 전체 매출구조에서 전선부문은 시너지가 떨어지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고 지분 매각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선업계 한 관계자는 “희성전선은 지난 96년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돼 독자 경영을 추진해 왔지만 LG전선과의 협력관계는 유지해 왔다”며 “특히 지난 4월 LG전선그룹 대주주 일가인 구자업 고문이 부임하면서 LG전선그룹에 사실상 편입됐다”며 업계 파장을 경계했다.

## 제룡산업, 옥천공장 대전 이전

제룡산업(대표 박종태)이 충남 대전의 제4산업단지 내에 1만5천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상반기까지 공장준공을 마칠 계획이다.

제룡산업은 관계자는 “현재의 옥천공장을 이전해 배전자재 전제품을 오는 하반기부터는 대전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산업단지는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5일대 23만4천여㎡는 지난 98년 LG반도체(현 하이닉스반도체)가 354억원에 매입했으나 자금난 등으로 입주계약을 하지 않아 그동안 빈 터로 방치돼 왔다.

제룡산업은 대전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물류난과 그동안 옥천공장이 비좁아 제품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룡산업은 그동안 공장이전을 위해 지난 2001년 경기도 오산에 1만4천여평의 공장부지를 매입했으나 오산시에서 공장허가가 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제룡산업은 내년 대전공장 이전을 계기로 중전기 종합메이커로 도약한다는 장기계획을 세웠으며, 내년부터는 765kv 금구류시장 참여를 위해 관련제품 개발을 마친 상태다.